

도입
기도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정과 함께 하사 은혜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사 매일의 삶이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내가 주인 삼은 Laying Down My Idols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놓고 주님만 사랑해 (X2)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Laying down all my idols before the Lord,
I'm coming to the Lord, Lord alone.
Laying down everything that was dear to me,
now I love my Lord, Lord alone.
Oh His love, in the midst of angry storm and sea,
calms me with His tender touch
Oh His love, is the Rock of my soul, and I will stand still on His love.

본문 요한복음 3장 1-3절

- 1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 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John 3:1-3

- 1 Now there was a man of the Pharisees named Nicodemus, a ruler of the Jews.
- 2 This man came to Jesus by night and said to him, "Rabbi, we know that you are a teacher come from God, for no one can do these signs that you do unless God is with him."
- 3 Jesus answered him,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again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는 니고데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자 이스라엘의 강력한 통치 기관인 산헤드린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서 구약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라 부르며, 예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임재로 인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니고데모의 관찰에 대한 답변 대신, 예수님은 '거듭남'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이 개념은 니고데모를 혼란스럽게 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데 집중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한 영적인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드려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출생이 자연적 출생과 같지 않으며, 바람처럼 신비하게 움직이는 성령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7-8절). 성령의 임재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느끼고 볼 수 있지만,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의 혼란은 그의 더 깊은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그의 이해 부족은 예수님의 도전에 직면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이러한 비유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면 더 큰 영적 진리를 더욱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스스로 하늘의 길을 발견할 수 없으며,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만이 이를 드러낼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셨습니다(민수기 21:4-9). 뱀에 물린 자들이 뱀을 바라보며 치유받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단순한 비유의 설명을 넘어 구세주의 필요성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원과 영생이 학문적인 추구나 자기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이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주어졌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유효하며,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

In John 3, we are introduced to Nicodemus, a Pharisee and member of the Sanhedrin, a powerful ruling council in Israel. He was a respected man of influence, dedicated to strict obedience to the Old Testament law. Approaching Jesus at night, Nicodemus showed respect by addressing Him as “Rabbi,” acknowledging Jesus’ miracles as evidence of God’s presence. Jesus’ response to Nicodemus was unexpected. Instead of addressing Nicodemus’s observations, Jesus spoke of the need to be “born again,” a concept that puzzled Nicodemus. Pharisees focused on adherence to God’s law and awaited His kingdom, but Jesus declared that entering God’s kingdom required a spiritual rebirth—a transformation only possible through the Holy Spirit. Nicodemus struggled to understand, perhaps taking Jesus’ words too literally. Jesus clarified by comparing spiritual birth to natural human birth, emphasizing that just as wind moves mysteriously, so does the Spirit. The Holy Spirit’s presence is felt and seen through its effects on people, but it cannot be controlled or predicted (verses 7–8). Nicodemus’s confusion highlighted his need for deeper understanding; as the teacher of Israel, his lack of comprehension underscored Jesus’ challenge. Jesus continued by explaining that if Nicodemus could not grasp these earthly analogies, he would struggle even more with greater spiritual truths. Jesus emphasized that no one could discover the way to Heaven on their own—only the Son of Man, who has come down from Heaven, could reveal it. He foreshadowed His crucifixion by referencing Moses lifting up the bronze serpent in the wilderness (Numbers 21:4-9). Just as those bitten by serpents were healed by looking at the bronze image, so salvation would come through faith in Jesus lifted up on the cross. Jesus’ dialogue with Nicodemus was not just about metaphors but about pointing to the ultimate need for a Savior. His teachings underscored that salvation and eternal life are not attained through scholarly pursuit or self-effort but through faith in Christ’s sacrifice. Eternal life, Jesus declared, was available to all—Nicodemus, the Sanhedrin, and even the untrained disciples. This message remains true today: eternal life is available to all who believe in Him.

나눔질문

1. 예수님을 찾아 온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거듭남’에 대해 말해 주십니다. 이 거듭남의 의미는 바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새로운 존재가 됨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나의 삶 속에 보여지는 예전과는 다른 나의 모습이 있다면 함께 나눠봅시다.

To Nicodemus, who came seeking Jesus, the Lord speaks about being “born again.” The meaning of this rebirth is to be “born anew,” which signifies becoming a new being. If there are aspects of your life as a new creation by the Holy Spirit that differ from your old self, let’s share them together!

2. 예수님은 자신을 모세의 뿔뿔에 비유하며, 그 뿔뿔을 바라본 이들은 모두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됨을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인지 함께 나눠봅시다.

Jesus likens Himself to Moses’ bronze serpent, explaining that just as those who looked upon the bronze serpent were healed, only those who look to the Lord will receive salvation. Let’s share what it means for us to live a life that looks only to the Lord. And if there are obstacles preventing us from fixing our gaze solely on Him, let’s discuss them together!

마침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granting us the grace of salvation through Your boundless love for us. Help us live confessing that You are the Lord of our lives, and lead us so that we may live a blessed life focused solely on the Lord who saved us. We earnestly pray all these things in the name of our Savior, Jesus Christ. Amen.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제목

1.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May today be a day when we experience the renewing work of the Holy Spirit!
2.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May today be a day when we look only to the Lord!